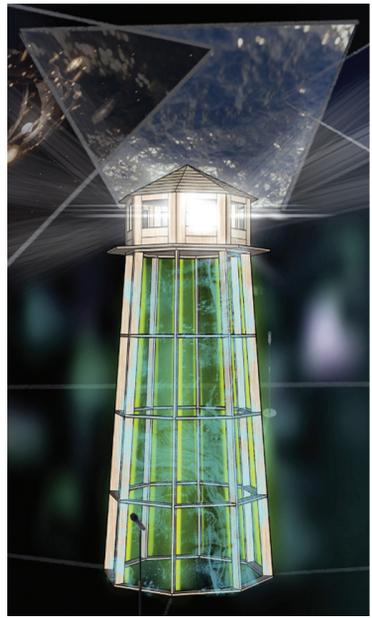


# 1980년·2024년 두 번의 계엄... 거리의 기억을 노래로 연결하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그날이 오면’...

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민중가요들이다. 노래 속에는 당시의 아픔과 상흔 그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시대를 초월해 불리는 노래에는 생명력이 있다. 당대의 모순과 불의에 저항하며 불렀던 노래는 그 시대를 헤쳐 왔던 이들의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기



임용현 작 '발화의 등대'

##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 전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아카이브

8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때문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막을 내린 비상계엄은 광주시민들에게 80년 5·18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80년. 2024년 두 계엄령은 데지뷰처럼 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줬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연대했다. 거기에는 바로 노래가 있었다.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는 바로 '노래'인 것이다.

5·18과 2024년 거리의 기억을 노래라는 매개체로 연결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오는 8월 17일까지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를 주제로 제1·2전시실에서 전시를 펼친다.

주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수상 강연이 모티브가 됐다. 한강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전시실은 사운드아트-미디어아트 작품과 음악을 소재로 한 아카이브로 구성됐다. 역사적 사건, 시민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담아내 관객들이 해석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먼저 전시실에 들어서면 다채로운 아카이브를 만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그날이 오면' 등 시민들에게 익숙한 20여 곡이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된 전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음악적 기억'이 사공간을 넘어 오늘에 현현하는 실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적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8월17일까지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를 연다.

정희석 학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음악사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명확해진 빌런, 선명해진 정의, 뚜렷해진 저항의 방법, 대학가 중심으로 노래를 즐기는 문화에 변화가 찾아왔다"며 "음악에 내포된 감성적 연결선이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과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에서는 1984년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출신 멤버들과 이화여대 '한소리', 고려대 '노래알', 성균관대 '소리사랑' 등 졸업생들이 '새벽'을 조직하고 '노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정희석 학에서는 "80년 5월 14일-16일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는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다. 광주 시내 거리 행진이나 분수대 광장 집회에서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선구자' 등을 불렀고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렀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는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와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전시장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민기 '학전' 대표, 노래패 새벽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노랫사를 소개하는 내용은 80년대를 살아온 관객들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기억을 환기한다. 다음은 노랫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일부 글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은 노래패 1세대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노래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음반은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음반사가 참고에 물어 두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의 국면에서 우리 삶에 밀착된 진실한 노래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1집 음반

참가자를 중심으로 동명의 노래 모임을 결성해 그 해 가을(1987년 10월 13일) 첫 공연을 가졌다."

전시 후반부는 민중가요를 비롯해 개사곡, K-팝 등 다양한 장르가 혼재된 음악 문화를 보여준다. 현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재해석의 주체, 다양한 문화소비자로 참여했다는 방증이다.

권혜원의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를 비롯해 성기완의 'HLKG518', 신도원의 '나-기억의 투영', 임용현의 '발화의 등대', 양민하의 '그대와 그대의 대화' 등은 기억과 노래를 매개로 의미있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한편 윤의 관장은 "노래는 동서고금을 넘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매개체 가운데 하나"라며 "80년대와 2024년 계엄령 하에서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는 동시대 예술로서 공명할 명징한 사례"라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뉴욕 재즈 거장 스티브 캐링턴, 5·18 광주 찾는다

내한 공연, 5월 18일 아트스페이스

재즈는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꿈꾸며 탄생한 음악이다. 그 정신을 담아 세계적인 테너 색소폰 연주자 스티브 캐링턴이 5·18 광주에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스티브 캐링턴 트리오 인피니티 내한공연-광주'가 오는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열린다.

재즈는 흑인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자유를 향한 염원 속에서 태어났다. 억압과 저항, 혁신을 품은 이 음악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광주에서 울려 퍼진다는 점은 깊은 상징성을 지닌다.

현재 뉴욕 재즈 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스티브 캐링턴은 강렬한 톤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비밥 스타일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전통과 혁신을 넘나드는 연주자로 평가받는다. 이번 공연에는 드러머 김민찬, 베이스 트 빌리 애드워드와 함께 트리오를 이룰 정통 하드

밥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캐링턴은 이날 공연에서 그의 자작곡은 물론 'Weaver of Dream', 'Some Other Blues', 'Monk's Dream' 등 재즈 명곡을 연주하며 깊은 울림을 전할 계획이다.

주요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대표는

"재즈가 지닌 혁신적인 실험정신과 광주의 5·18 정신은 자유를 향한 저항과 꿈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며 "특히 공연장인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은 일제강점기 청년들이 문화와 교육을 통해 자강과 독립



왼쪽부터 스티브 캐링턴, 빌리 애드워드, 김민찬.

립을 꿈꾸던 옛 흥학관 터에 세워진 만큼, 더욱 뜻 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석 5만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 봄날 물들이는 아르헨티나 탱고 선율

'카스타냐 탱고' 콘서트, 5월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광주의 봄날에 스민다.

탱고 전문 연주단체 '카스타냐 탱고'가 오는 5월 3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탱고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 지역문화 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석 무료이며,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다.

'그해 봄날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해설과 함께 하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10년간 활동한 김아람 음악감독(바이올린)이 직접 곡에 얽힌 이야기와 해설을 더해 관객의 이해와 몰입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피아노(조영훈), 더블베이스(김우성), 반도네온(김종환)으로 구성된 콰르텟 편성은 연주의 깊이와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

공연에서는 이국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정서와, 광주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교차하는 순간들을 담은 곡들이 소개된다.

특히 70-80년대 아르헨티나 사회를 반영한 탱



카스타냐 탱고 연주자들. (카스타냐 탱고 제공)

고 음악들은, 같은 시기 광주의 풍경과도 맞닿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아람 음악감독은 "70-80년대 아르헨티나 모습을 담은 탱고 곡들은 그 시기 광주의 풍경과도 교차되며 시민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은 떠나면 땅, 아르헨티나의 생생한 음악과 열기를 가까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죽어 뼈만 남은 상황에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

박경훈 '백골난감' 전, 5월 3일까지 오월미술관

제목부터 강렬해 눈길을 끈다. 아니 소름이 끼친다.

'백골난감' (白骨難堪). '백골난망'은 들어봤는데 '백골난감'은 무슨 뜻일까.

백골난감(白骨難堪)은 '죽어 뼈만 남어도 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즉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와 달리 '백골난망' (白骨難忘)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어 뼈만 남은 상황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 4·3, 77주년을 기념해 오월미술관(관장 범현이) 열리고 있는 박경훈 작가의 목판화 초대전 '백골난감' (白骨難堪). 지난 7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제주와 서울, 광주에서 오는 5월 3일까지 동시 진행 중이다. '이름 잃은 항쟁에 바치는 때늦은 弔辭'라는 부제는 이번 전시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광주와 제주를 오버랩해서 사유할 수 있게 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뼈만 있는 앙상한 인물들을 형상화한 모습과 마주한다. 다소 무섭다는 생각도 잠시, '왜 작가는 뼈만 남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

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가의 언어는 모두 뼈와 충으로 구현됐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된 데서 보듯, 작가는 죽음을 직시하고 나아가 오늘의 삶을 이야기한다.

김준기 평론가의 말대로 "4·3학살에 대한 애도와 제의라는 원초적 서사를 강하게 밀바다

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4·3 당시 수괴급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는 작품은 죽어서도 잊갈리는 운명에 처한 인물들 이야기를 대변한다.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받는 이들과 달리 그렇지 못한 이들을 형상화했다.

작가는 '작가의 글'에서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과 그 주구들의 폭정에 굴하지 않고 깃발과 총을 들어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했음을 보여준 제주 민중



'우리는 죄없는 사람'

의 인간성이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무엇보다 4·3의 정신은 불의에 맞선 저항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현이 관장은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한다"며 "가장 참혹할 때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을 때 죽음이 최선일 때 진실은 더 크게 기억에 저장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의 단색화, 그 '은근과 끈기'의 세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29일 윤진섭 평론가 강연

오늘날 우리나라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단색화' 의미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논의하는 강연이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29일(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 6전시실에서 전시와 연계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하정웅컬렉션 '단색화: 무한과 유한' 전시와 연계해 기획됐으며 미술사학자 윤진섭 평론가가 강사로 나선다.

'한국의 단색화, 그 '은근과 끈기'의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윤 평론가는 단색화가 미니멀리즘을 넘어 한국적 사유와 정신성을 담은 예술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단색화: 무한과 유한'과 연계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미술 평론가는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미학과를 거쳐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단색화와 실험미술, 개념미술에 대한 정직한 분석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를 비롯해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총감독 등 기획자로서도 활동을 펼쳤다. 지금까지 '글로벌리즘과 아시아의 현대미술', '한국 모더니즘 미술연구', '단색화-미학을 말한다' 등을 펴냈다.

한편 윤의 관장은 "한국 미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단색화'라며 "이번 특강을 매개로 단색화의 가치와 본질, 그리고 그 안에 스민 우리의 정신을 다각도로 사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무료 입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